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포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지역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초춘춘 55 바른말 고운말	00 다 잘될거야(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충재
⑫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②		00 빛고를 행복 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동물가족 체험기 와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③	00 직언직설	00 콘서트 필(재) 50 바른말 고운말(재) 55 튜튼생활제2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40 문화사색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④	30 캐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아육장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⑤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벌 프리즘스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남’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⑦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때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이온 황금복〉
⑧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소프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별난 며느리〉	00 월화 특별기획 〈화장〉	00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⑪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아부의 반찬	15 헬링캠프 500人
⑫	40 통일 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재)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35 소프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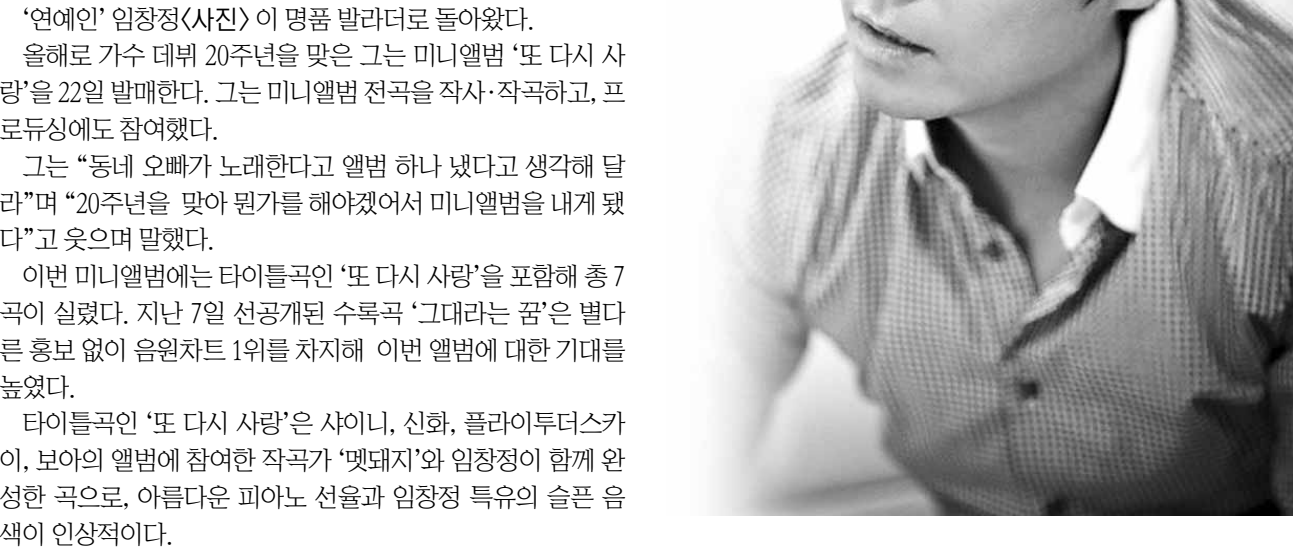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보장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8:55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05:40 요리비전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6:30 코코코 다코	20:40 다큐 오늘
0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맹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바다 정원, 필라우〉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1:30 한국기행 〈가을이 오면 괴산〉
08:00 당동맹 유치원 1	13:05 지식세네le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다큐프라임 〈천국의 새〉
08:10 Why 최고다 호기심박지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	22:45 달라졌어요
08:20 당동맹 유치원 2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5 개니말	23:35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08:30 두더지콩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2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2	24:05 지식세네le
08:40 당동맹 유치원 3	14:00 미술탐험대	18:25 두키탐험대	
08:45 코코코 다코	14:30 놀이타 구조대 뽀잉	18:4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3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발명이 팡팡	

EBS플러스1		EBS플러스 2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4:30 등업신공 <수학2(상)>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B형>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시험대비 강좌	15:20 EBS 초등 중간학업 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국어 3-2>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8:30 한경 TEST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 4-2>
02:30 " <미적분I>	15:40 " <미적분II>(재)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6:20 " <국어 5-2>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9:10 TV중학 <국어1(1)>	16:50 " <국어 6-2>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II>	17:20 " 평가문제 <미적분II>(재)	09:50 " <수학1(상)>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5:00 뉴탐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10:30 " <영어 1>	18:00 TV중학 <국어 5.6>
06:00 " <생명과학>	19:30 " <영어>	11:10 " <국어3(4)>	18:40 " <수학3(상)>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11:50 " <수학 2(상)>	19:20 필독중학 세계사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강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3:00 데일리 사술형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09:20 " <심주석의 수학>	21:50 " <문학A형>(재)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	13:50 중학 중·기 시험대비 문제풀이 <과학 1-2>	22:00 중학 중·기 시험대비 문제 풀이 <과학 2-2>
12:15 올림포스 <국어A-알파개념>(재)	23:50 지식세네l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 (음 8월 9일 庚子)	
	48년생 기회는 자신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60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행이 더 낫다. 72년생 변경하지 말고 현행대로 실행하는 게 유익하다. 84년생 천지의 기운이 도움을 주니 도모 해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04, 51		42년생 맹점만 보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나라. 54년생 완급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역을 부른다. 66년생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 78년생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행운의 숫자 : 22, 55
	49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다. 61년생 할 수는 있으나 탄력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73년생 인내를 통한 단련의 기화로 삼자. 85년생 손실은 상당하나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32		43년생 원대한 시작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55년생 과격적인 양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을 주춤해야 한다. 67년생 개별적으로 경중을 따져보자. 79년생 다정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4, 28
	38년생 예전의 정확도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50년생 모순이 보이니 속히 개선함이 이롭다. 62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74년생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겠다. 86년생 기반은 튼튼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79		44년생 개척 정신을 발휘한다면 크게 길할 것이다. 56년생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68년생 각자의 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80년생 몰입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4, 75
	39년생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중차대함을 간과하게 된다. 51년생 효율성을 견지하자. 63년생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75년생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87년생 꿈에 형제를 보았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2, 13		45년생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57년생 추진하는 방향은 옳으나 지속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69년생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핵심 요건이다. 81년생 망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9, 48
	40년생 기조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52년생 받아들이기엔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64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오류가 보인다. 76년생 불합리한 것을 방치한다면 연쇄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43, 93		46년생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니 실수가 없어야겠다. 58년생 체계와 절차에 따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70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82년생 상대의 발언에는 다중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행운의 숫자 : 84, 65
	41년생 처음 마음먹었던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양태이나나. 53년생 외부에는 전혀 노출하지 않음이 합당하다. 65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 77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0, 60		47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 애쓰게 된다. 59년생 커다란 행운이 보이지 않지만 고난은 없으니라. 71년생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차질을 빚는다. 83년생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7,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령!” ☎010-9790-8237			

“너그러운 용서 담긴 사랑 마흔 인생의 철학 담았죠”

임창정, 20주년 기념 앨범 ‘또 다시 사랑’ 발매



“연예인” 임창정(사진)이 명품 발라더로 돌아왔다. 올해로 가수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는 미니앨범 ‘또 다시 사랑’을 22일 발매한다. 그는 미니앨범 전곡을 작사·작곡하고, 프로듀싱에도 참여했다.

그는 “동네 오빠가 노래한다고 앨범 하나 냈다고 생각해 달라”며 “20주년을 맞아 뭔가를 해야겠어서 미니앨범을 내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번 미니앨범에는 타이틀곡인 ‘또 다시 사랑’을 포함해 총 7곡이 실렸다. 지난 7일 공개됐던 수록곡 ‘그대라는 꿈’은 별다른 홍보 없이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해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타이틀곡인 ‘또 다시 사랑’은 사이니, 신하, 플라이투더스카이, 보아의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 ‘햇돼지’와 임창정이 함께 완성한 곡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임창정 특유의 슬픈 음색이 인상적이다.

“누구나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픔이 생기죠. 그 사람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또 다시 사랑은 오고, 내일도 온다는 걸 말이죠. 다 인생에 있어야 할 일이 없어야 할 일은 아니니까요.”

또 다른 발라드곡 ‘그리다’는 17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때 또다시’를 생각하며 쓴 곡이다. 임창정이 차 안에서 거리를 보며 직접 쓴 가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임창정은 ““그때 또다시”를 세월이 지나서 부르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곡을 썼다”라며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인생의 철학을 반영하고 싶었다. 40대의 너그러운 용서가 담긴 사랑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스무살 어린 시절’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다. ‘니들 아주 젊음이 마냥 그냥 영원할 것 같지?/ 살짝 눈 돌렸다가 뜨면은 서른 되고 마흔 돼/ 이것들 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해’라는 나레이션이 익살스럽다. 임창정은 “20대 때는 40~50대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또래들에게 지금의 삶도 양파 겹질처럼 신선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20대 친구들에게는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임창정은 지난해 12월 댄스곡 ‘임박사와 함께 춤을’을 발표하고 ‘쓰라린’ 실패를 맛봤다. 그는 “열혈 팬들이 제가 댄스 할까 봐 걱정이다”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발라드를 택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임창정은 지난해 12월 댄스곡 ‘임박사와 함께 춤을’을 발표하고 ‘쓰라린’ 실패를 맛봤다. 그는 “열혈 팬들이 제가 댄스 할까 봐 걱정이다”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발라드를 택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16일 개봉한 정통사극 영화 ‘사도’(사진)는 역사 속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리얼리티를 살린 작품이다. 영화는 영조 대왕에 의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된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입체적으로 재조명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중록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뒤져 대사의 70~80%는 사료에 나온대로 썼다. 영화를 연출한 이준익 감독은 “영화에서 사실과 허구의 비율은 9대 1 정도”라며 “복잡한 정통사극을 지향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영화의 방향이 이렇게 잡힌 만큼 분장과 의상에는 거의 완벽을 기해야 했다.

조태희 분장실장은 “사극이 과한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관객이 영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런 점을 과감히 탈피하려고 배우들이 거의 민낯에 가까운 메이크업을 했다”고 말했다.

송강호가 연기한 영조는 실제 어진(왕의 초상화)을 참조해 거의 그대로 복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조 어진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 훨씬 길고 역동감 있는 수염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화를 보면 어진에서 나오는 영조의 실제 모습과 흡사하다. 또 흰 수염에는 노란 빛감도 들어가 있고 수염이 입술을 덮는 등 완벽한 복원뿐 아니라 자연스러움에도 신경을 썼다.

영조는 사치를 유발한다며 가제(여인들이 머리를 꾸미려고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는 것) 금지령을 내렸다. 영조 시대에 가제가 없었다는 점은 쪽진 머리와 첩지(머리 위를 꾸미던 장식품)의 고증에 반영됐다. 비녀도 낡은 느낌기 들도록 전체적인 톤을 ‘엔티크 골드(antique gold)’로 잡았다.

‘사도’에서는 약 1500벌의 의상이 등장한다. 보통 사극에서 600~700벌의 의상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의상은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관객이 체감 못할 정도로 두드러지진 않는다. 분장과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번에는 발라드로 돌아왔지만 어떻게든 댄스로 일어날 거예요. 그냥 댄스가 아니라 뭔가 기발하고 어이없지만 중독되는 댄스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댄스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웃음)”

임창정은 최근 또 여배우와의 스캔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캔들 소식을 듣고 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그에게 또다시 사랑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참고로 그는 아들 셋을 둔 ‘돌싱’이다.

그는 “당연하다. 사랑은 사람의 인연이다”라며 “사랑은 준비가 돼서 오는 게 아니다. 인연은 나도 모르게 오는 거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임창정은 이날 음감회에서 유쾌하고, 재치있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40대의 임창정이 이렇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것은 억지로 만든 버릇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 때 화장실에서 미친놈처럼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좋은 일이 계속 생겼어요.”

그는 자신을 항상 ‘만만관’, ‘광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예인이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물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연예인이라는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처럼 형편도, 외모도 가난한 후배들을 ‘제2의 임창정’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또 100세에 콘서트를 하는 것이 저의 다른 꿈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상도 과장하지 않고 절절한 느낌으로 표현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심현섭 의상실장은 “이번 영화의 특성상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상이 튼튼 물임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사도”는 의상이 빛나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조는 왕 중에서도 가장 절약정신이 투철했고 근검절약이 몸에 밴 인물이었다. 의상팀은 용포 끝을 닳게 하고 거칠고 실오라기가 튀어나오게 하는 작업을 거쳐 검소한 느낌의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했다.

심 실장은 “개인적으로 인물마다 색깔도 더 넣고 화려함이 나 여러 장치를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며 “이 작품의 의상은 굉장히 절제미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사실적인 느낌을 주도록 작업했다”고 말했다.

고령의 영조 대왕 얼굴 등에는 특수분장이 사용됐다.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의 손톱이 자라는 것도 특수분장을 이용해 사실성에 세밀함을 더했다.

윤희정 특수분장 실장은 “특수분장으로 명배우의 연기를 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며 “배우의 진짜 근육 하나하나와 호흡하면서 연기와 같이 보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으로 왕을 연기한 ‘민고 보는 배우’ 송강호가 벌인 노력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70대 영조의 모습을 위해 한여름 4시간에 걸친 특수분장은 물론, 영조만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발성연습, 한 줄의 대사를 위한 수백번의 리딩까지 완벽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송강호는 “모두가 잘 아는 실존인물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연령대를 연기해야했기에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준익 감독은 “송강호는 촬영 내내 영조로 살았다”며 “숙소에서 건너편 방에 묵던 송강호의 우렁찬 대사 연습으로 밤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